

‘블랙리스트’ 의혹 검찰 수사 나서

‘인권위·문화계 블랙리스트’ 서울중앙지검 형사1·6부에 각 배당... 기록 검토 중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와 문화예술계를 대상으로 이뤄진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인권위에 소속된 일부 진보 성향 인사 명단을 담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등 의혹 사건을 최근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인권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과거 청와대가 인권위에 부적절하게 개입하거나, 인권위 스스로 인권 침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인권위는 조사를 거쳐 경찰청 정보국이 생산한 블랙리스트가 최소 두 건, 청와대에서 만든 블랙리스트가 두 건 존재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 측에서 생산된 블랙리스트에는 인권위 일부 직원들의 정치 성향 등이, 청와대 블랙리스트에는 ‘이명박정부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과 같은 명단이 담긴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수

사 의뢰한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형사6부(부장검사 김도균)에 사건을 배당,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문체부는 박근혜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 등에 대해 지원을 배제하는 등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고 지난해 10월 관련자 1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발표한 이행계획안과 비교해 봤을 때 수사 의뢰 대상이 3명 더 늘어났다.
형사부와 형사6부는 각각 인권위와 문체부가 수사를 의뢰한 내용을 살펴본 뒤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뉴스



장수지역 문인화 동호회 회원들이 18일까지 전주 Y갤러리에서 신년 전시회를 개최한다.



부안청자박물관이 전시 관람 환경개선 및 유물 보존관리 등을 위한 훈증소독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임시 휴관 한다.

“관람객에게 최상의 환경과 서비스를”

부안청자박물관 훈증소독 21~25일 휴관 전시 관람 환경개선·유물 보존관리 집중

부안청자박물관이 전시 관람 환경개선 및 유물 보존관리 등을 위한 훈증소독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임시 휴관 한다.
부안청자박물관은 관람객들에게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고 해충과 유해균에 의해 소

장품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훈증소독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소독은 전시실 및 수장고, 소장유물 등에 대해 공간을 밀폐한 후 전문가에 의한 문화재 전문 약제 살포 및 훈증을 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박물관은 임시로 휴관을 한다.
나무와 벗짚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청자제작실의 초기와 청자운반 선박 등의 모형과 소품에는 공기 중에 포함된 유해세균과 해충 등

의 생물학적 방제를 실시하며 박물관 전시실 및 전시 유물에 대한 훈증소독과 아울러 수장고 내부와 보관유물에 대한 약제 살포를 진행한다.
부안군 최연근 문화관광과장은 “박물관 훈증소독기간 동안 임시 휴관으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용객들의 이해를 당부드린다”며 “관람객에게 최상의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시 휴관 관련 내용은 부안청자박물관 누리집(www.buan.go.kr/buancla/index.buan)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장수군 문인화 동호회 신년 전시회 열어... 문인화의 멋 선사

예묵회 회원전 전주 Y갤러리서 내일까지

장수지역 문인화 동호회 우보천리, 작은소목회 등 회원들이 18일까지 전주 Y갤러리에서 신년 전시회를 개최한다.
Y갤러리 개관 기념으로 마련된 이번 ‘제1회 예묵회 회원전’에서는 동호회원들의 작품 20여점이 전시돼 관람객들에게 문인화의 멋을 선사한다.
Y갤러리 예림 정향자 선생은 “뜻이 있는 곳

에 길이 있듯이 전시를 하고 싶은 작가들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싶어 전시회를 열게 됐다”며 “장수가 문화 예술의 고장으로서 발돋움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계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병석 회장은 “장수군 문인화 단체들이 지역을 벗어나 다양한 전시회에 참가하여 서로 교류함으로써 견문을 넓히고 문화예술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내 고장의 문화알림이는 내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이달 28일까지 ‘JB문화통신원’ 모집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 이하 재단)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표하는 ‘JB문화통신원’을 모집한다.
재단은 도내 14개 시군의 문화·관광·예술에 관한 정보 제공, 지역의 숨은 문화 발굴과 재조명, 도민들의 문화·관광·예술 향유를 이끌어 내기 위해 현장을 발로 뛰어 줄 참신하고 역량이 있는 2019 ‘JB문화통신원’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이며 전주, 익산, 군산, 원주는 각 2명, 그 밖의 시군은 각 1명으로 총 18명 ‘JB문화통신원’이 선발된다.
지원 자격은 14개 시·군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이며 문화예술관련 분야의 활동가, 기획자, 작가, 자유기고자, 기관 및 단체 실무자, 일반인 등이다.
또한, 월 1회 이상 도내 문화예술 현장 취재(사진 촬영 포함) 및 원고 작성, 간담회 참석 등 재단의 홍보 요원으로

서의 역할이 가능해야 한다.
선발된 ‘JB문화통신원’에게는 위촉장 수여와 소정의 일고료(활동비 포함)가 지급되며, 명찰 제작, 우수 원고 시상, 국내 공모전 참여, 상·하반기 역량강화 워크숍 참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JB문화통신원’은 문화·관광·예술에 대한 도민 중심의 생생한 소식 전달 체계를 마련해 온라인 소식지 ‘미중 뉴스레터’에 전라북도 문화예술 전반의 소식을 제공하고 역할을 수행한다.
재단 김정인 홍보팀장은 “지역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지닌 분들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 2019년에는 더욱 다양한 지역 소식을 도민과 함께 공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와 홍보팀(063-230-74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